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민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완경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음 2월 15일) 제15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4.13 총선 D-21

김종인 비례출마 문제 총선에 악영향

더민주 전북 선거전략 '비상등'

더불어민주당 전북 총선전략에 빨간등이 켜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례 출마 문제가 자칫 이번 20대 총선에서 후보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전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당과의 지역 패권 싸움이 힘든 판에 김종인 대표 비례 출마는 '불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돼 가는 양상이다. 도내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있느냐' 특히 호남권 시수는 포기한게 아니냐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포기(?)
합의된 선거구 확정기준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등이다. 이 중 수도권인 서울은 49석, 경기도는 60석, 인천은 13석으로 총 122석이다. 반면에 호남권은 전북(11→10석), 전남(11→10석), 광주(8석) 등 모두 합쳐야 28석에 불과하다

호남은 포기하나?

김종인 대표 107석 확보 발인
최대 격전지 수도권 염두에 둔 것
호남 민심 배제하면 패배 가능성

그야말로 호남은 조족지혈이고 수도권은 4.13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셈이다.

김종인 대표의 107석 확보 역시 수도권을 염두에 둔 발인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호남 정치를 배놓고는 쉽지 않다는게 지역 정치의 의정이다.

기존 양당 구조가 아니고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자간의 구도로 치러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권을 두고 아권은 혼전 양상인 반면에 새누리당의 영남권에 대한 충성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한몫한다.

예컨대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수도권 112석 중 33석밖에 확보하지 못했지만 전체

"어차피 힘겨운데...저도 그만?"

국민의당과 수도권 놓고 경쟁 중
양당 후보자 모두 지역내 인지도 높아
승부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

152석을 얻어 수도권에서 패배하고도 과반을 달성할 정도로 막강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서는 아권이 나눠먹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호남 민심을 배제하고는 107석은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사실 의석수만 놓고 보자면 호남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아권 심장부이자 표심 척도로 여겨지는 호남 정치는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특히 대권이라는 큰 과제에서 호남 정치는 수도권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등한시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전북은 어차피 힘겨워, 저도 그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북 정치 주도권을 놓고 뜨거운 경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인 김춘진(김제부안) 후보를 중심으로 재선인 이춘석(익산갑) 후보와 초선인 김문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등 4명의 현역이 버티고 있다.

국민의당은 재선인 유성엽(정읍고창) 후보와 초선인 김관영(군산) 후보가 중앙당과 도당 중책을 맡으며 한판 승부를 예고 중이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정동영(전주병) 후보, 조배숙(익산을), 이한수(익산갑), 임정연(완주무진장) 등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단 이전처럼 이들 모두가 같은 당 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문제없겠지만 현재는 그럴수 없는 구도다.

양당 예비후보 모두가 지역에서 탄탄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서로에게 승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혼전이다.

일각에서는 더민주가 밀리고 있다는 예측도 있다.

아권의 내홍과 분열을 지켜보아 못한 더민주 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2번 부여는 더욱 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 관측자들은 이번 김종인 대표 비례 출마에 대한 '밀어붙이기 식' 상황을 두고 더민주 지도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더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반발 민심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치열하게 싸우는 더민주당 호남권 후보에 대한 배려가 없다. 아예 호남권을 포기하고도 선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이번 총선에서 7:3 또는 8:2까지 앞설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대표 비례 문제는 더민주 당을 갈수록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의 '그래도 더민주당'이 아닌 오히려 지도부가 상대방 후보 선택을 밀어주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여 걱정스럽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육설 파문' 윤상현, 무소속 출마 가다

김무성 육설 파문으로 컷오프된 친박 핵심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로 가다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22일 모 언론사와 통화에서 "오늘 입장발표가 예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지자들

을 비롯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낙천 발표 전후로 공식 활동은 접은 채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지지자 및 측근들과 무소속 출마 여부를 논의해 왔다. 인천 남구읍은 한 때 '무공천' 지역

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는 재공모를 실시했다.

한편 24일부터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윤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할 경우 28일 자정까지는 탈당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는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경우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주 기자

청소년이 아름답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 6 회 전국형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시
장소 : 전주 중부비전센터 5F 비전홀

주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공동주관 : 전주매일신문사,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후원 : 전주시, 동아보건대학교
대회문의 : 063) 288-9700



새누리당 전희재(전주 갑), 정운천(전주 을), 김성진(전주 병) 예비후보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전북 발전을 위한 100만 전주 만들기'를 선언했다.

“전북 발전 위한 ‘100만 전주’ 만들 것”

전희재·정운천 등 새누리 전주권 예비후보 강조
전주완주 통합·조선전통문화특구 지정 등 제시

새누리당 전희재(전주 갑), 정운천(전주 을), 김성진(전주 병) 예비후보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전북 발전을 위한 100만 전주 만들기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00만 전주만이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500조 기금운용을 위한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을 책임질 수 있다"면서 "전주와 완주의 통합으로 시작되는 '100만 전

주는 전주의 탄소밸리와 완주의 과학산업단지의 성공적 결합으로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축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교부세 지원 등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최대한 얻어내고, 통합으로 야기 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겠다"라며 "과거 전주완주 통합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양 자치단체

의 상생사업도 더욱 발전시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와 완주는 동인 문화 생활권으로 천년을 함께 해왔다"면서 "일제 강점기에 불법적인 착취 편익에 따라 나뉜 행정구역의 이제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100만 전주 만들기 위해 ▲전주완주 안팎한 통합 ▲전주 탄소밸리와 완주테크노과학산업단지 화학적 결합 추진 ▲전주완주마을 중심으로 조선전통문화특구 지정·복원 ▲통합 신청사 전주 예코시티와 완주 삼례봉동 있는 지역 건설 등을 제시했다. /이성주 기자

지카바이러스 국내 첫 발생... 전북 11건 의심신고접수

9건 음성 판정·2건 검사중

브라질에 체류했던 한 남성이 지카(Zika)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 돼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의심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의심신고(사례)는 현재까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9건은 모두 음성 판

정을 받았고, 2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태국과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발열 등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여 방역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북에서 신고된 지카 바이러스 의심 사례는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면서 "현재 검

사중인 2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약 22일간 브라질에 체류했던 40대 남성이 지카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이다. /박용주 기자